

## 부산·울산·경남지역 언론 합동회견 참석자 오찬

멀리 오셔서 진지하게 취재해주시고, 특히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. 말을 많이 해서 긴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. 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실수했다 싶은 것은 좀 봐주십시오. 그래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항상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, 비판적 입장과 분석인데 당연한 줄 압니다. 지금 정부에 비판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내가 위기에 강합니다. 온갖 곤란한 지경에 여러 차례 빠졌지만 극복해냈습니다. 지금도 어려운 시기입니다. 위기 극복의 전례가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. 7개월이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긴 시간도 아닙니다. 결과를 말하기는 짧은 시간입니다. 최선을 다해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.